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70호_발행일: 2004년 2월 15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2004년 제직수련회]

공동체회복과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되길

지난주일(8일)과 월요일(9일) 이틀에 걸쳐 2004년 제직수련회가 중예배실에서 있었다. 이번 이틀간의 제직수련회 기간동안 400여명이 넘는 제직들이 모였는데, 담임목사는 첫날 특강을 통해 '주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성'을 역설했고, 둘째 날은 '주님의 손발'이라는 제목으로 사역의 원칙과 원리에 관해 강의했다. 이번 이틀간의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균형있는 건강한 구역모임과 공동체성 회복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자!

첫날 담임목사는 제직으로 일년간 봉사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자세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이기 이전에,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했다. 공동체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미 공동체적이시기에 공동체는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며 존재의 뿌리요 근원이다.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 단위는 가족



(family)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처럼 진정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기도 하셨다. 공동체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온갖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공동체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를 제공해 준다. 공동

체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준다.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담임목사는 올해 모든 제직이 속한 구역을 이러한 공동체, 주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한해가 되기를 당부했다. 모든 교인은 어떤 모임에서든

(2면에 계속)

[사경회 강사 조현삼목사]

교회건물 무소유와 봉사사역의 비전을 갖고



2월23-25일로 예정된 신앙사경회 강사로 오는 조현삼목사의 비전과 목회정신은 '감자탕교회'로 알려진 서울광업교회의 모습속에 잘 녹아 있다.

서울의 북쪽 수락산 기슭에 있는 5층 상가건물의 3층에 세들어 있는데 1층 감자탕 식당의 간판이 너무 커서 교회 이름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속칭 '감자탕교회'가 되었다. 교인수가 1,000명이 넘도록 손을 들면 천장이 닿는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5부에 걸쳐 보면서도, 셋방살이를 견디며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매주 수천 만원의 현금을 100만원만 남기고 필요한 곳에 쓰며, 본당과 사무실, 식당,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모두 다섯 군데로 갈라져 예배를 드린다. 재정부와 감사부를 따로 두어 견제하면서 재정을 100%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특별목적용 가진 현금을 하지 않고 십일조와 일반헌금만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마른길레도 다시 쥌다'는 자세로 절약 또 절약하고,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무조건적으로 섬기며,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을 조직하여 재난이 일어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교회건물 무소유, 무기명헌금, 재정의 50%는 선교를 지향하는 주님의교회와 비전나눔의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교육위원회 신년첫모임]

2004년 교회학교 교육을 생각한다

올해 들어 첫 교육위원회 모임이 이달 22일 주일 오후 1시에 3층 소년부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교육위원장과 교육 지원부, 그리고 각 교회학교 부서별 담당 교역자, 부장 집사, 지도 권사, 총무이며 이 날, 올해 전반적인 교육위원회 일정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오리엔테이션하고 부서간 입장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당면 과제로 3월 14일에 전교회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 Partnership Training이 야외에서 있을 예정이며, 3월 20-21일, 27-28일에는 교사 세미나 및 부흥회가 4일 8회에 걸쳐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모임을 통해 올 한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주님의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비전팀]

청소년 집중사역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자!

지난 2월 7일(토) 오전 10시 교회 4층 대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권오승 장로(팀장), 박대길 집사, 이희숙, 손천숙 권사, 박용훈, 동현수, 신양금, 이종은, 우진선, 윤명희 집사, 정영환 목사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주님의교회 비전을 제시했던 문동학 목사는 우리 교회 청소년사역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통해 청소년사역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나아가서 한국 교육계에 영향력 있는 사역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사역을 네트워킹하는 산파역할을 해야 하고, 전문가들과 연계하고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이 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토론했다. 앞으로는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격주로 모임 계획이다. 청소년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청소년의 전문사역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2004 제직 수련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크고 복잡한 모임은 작고 단순한 모임들로 나누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은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공동체(구역)는 무엇보다 서로 신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그룹과 개인적 문제에 답을 찾는 그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룹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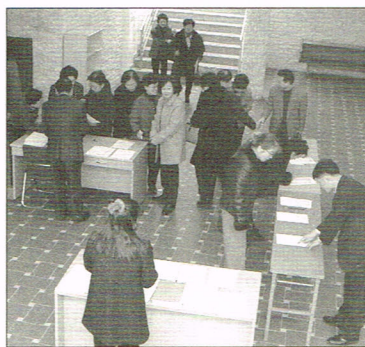
은사대로 사역하고, 주님의 십장 가지고 일하는 주님의 손발이 되자!

둘째날 담임목사는 달란트와 은사를 구분하고 달란트(또는 직업, 자신이 먹고 살기위해 하는 기술이나 일)

대리가 아니라 영적 은사(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일하고 섬기는 주님의 손발이 되기를 당부했다(롬 12:6-8). 담임목사는 주님의 손발로서 사역할 때, 특별히 집중의 원칙을 강조했다. 우리교회는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대외선교 및 구제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50%의 50%인 25%를 한 가지 사역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 한 가지 사역은 바로 우리나라와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 사역이다. 그리고 동시에 참여와 상호 연결, 교회 번식의 원리들을 함께 강조했다. 또한 사역을 할 때 가능하면 한 사람이 한 사역을 하며, 구역과 사역, 즉 공동체와 일터가 서로 연결되도록, 또한 평신도 전문 선교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역하는 사역의 몇 가지 가이드라인도 소개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십장을 가지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손과 발이 되기를 다짐하는 뜨거운 기도로 수련회를 마쳤다.



[바나바 사역팀]

새 가족 도우미, 바나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매주일 예배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대목이다. 이것을 매주일 신앙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누구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새가족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기존 성도들의 도움과 자연스러운 친교는 더욱 중요하다.

바나바 사역은 이처럼 새가족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구역과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역별로 한두 분내지, 한두 가정이 바나바사역자로 세워져 구역에 속한 새가족을 돕게 된다. 단, 성격상 해당구역과 교구에 새가족이 있어야만 바나바사역이 진행된다.

새가족을 맡게 된 바나바는 약 한달여 동안 주일에 배시간 전후로, 새가족에게 필요한 부분들과 교회생활

을 안내하고, 구역원을 비롯한 가까운 교우들을 소개하여 자연스럽게 교우들과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역정착을 돕게 된다. 새가족이 새가족반(3월부터 5주과정으로 2부, 3부예배후에 개설)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양육과 소속감을 갖도록 돕고, 새가족 심방 경우에 구역장과 함께 동행한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때,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바나바 사역자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안내부)

천국잔치의 자리로 안내하듯

지난 7일(토) 저녁 주님의교회의 얼굴 역할을 하는 안내부가 전체 식사모임을 가졌다. 2부예배 안내팀장을 맡은 강진식 집사와 김춘자 집사가 남한산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청수장'에서 모였다.

위원장 김소일 장로, 부장 김영봉 집사, 정영환 목사를 비롯 25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1, 2, 3부로 나누어 봉사하기에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갖게 되는 인상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배분위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공감하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밝은 미소와 정중한 태도로, 교인안내를 해야 하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풍성한 식탁도 모임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

[제직수련회 에피소드]

섬김의 손길로 주님의 손발의 모범보여

권사회는 지난 8일(주일), 9일(월)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직수련회 기간 저녁식사를 담당해 주었다. 이동순권사(권사회 회장)를 중심으로 양일간 총 700명의 예상인원을 설정하고 토요일부터 장을 보고 요리를 했다. 특히 장보기에서 성백술장로의 숨은 봉사자로 장을 보러간 권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주일 낮 2시, 새벽부터 시작된 주방봉사가 마감되는 시점부터 권사회 회원들이 모였는데, 30여명이 넘게 참여



하여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봉사를 했다. 권사 피택자부터 은퇴권사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고려치 않고 참여한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이 되었고, 음식의 분야별로 한 팀이 되어 최선의 맛을 내기위해 정성을 다했다. 첫날 식사시간에는 원래 예상했던 4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식사했고, 음식이 모자라 급히 다시 밥을 하기도 하였다.

둘째 날은 더욱더 여유있게 음식을 준비하여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었다. 봉사부에서도 이날 간식 준비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었다.

[할렐루야 찬양팀]

수요 예배를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찬양팀은 우리교회 수요 예배찬양을 담당한다. 2002년 임창남 집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할렐루야 찬양팀은 올해는 이동희 집사가 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매달 첫 주 토요일에는 찬양인도자인 김현령 전도사의 지도아래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고, 이외에도 예수전도단의 Worship Conference참석과 목요기도모임 찬양팀에 합류하여 함께 섬기면서 찬양사역자로서의 준비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특히 할렐루야 찬양팀을 위해 모니터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팀이 올 1월에 결성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윤은경 집사



믿음은 실재화하는 것

hacchi@empol.com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 모집



작년 가을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속에 시작된 유소년 축구클럽이 이제 제2기 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모집대상: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첫모임: 3월 7일(주일) 오후 1시 소예배실

훈련기간: 2004. 3. 7 - 6. 27

(매 주일, 총 17주, 우천시 실내 교육)

오전 11시 - 12시 30분 (중등부),

오후 1시 30분 - 3시 (초등부)

강사진: 이용수 집사(유소년축구클럽 부장 2002 한일 월드컵 기술위원장)

조남운 성도(브라질 축구 아카데미 대표, FIFA AGENT)

신재흠 성도(주택은행, 안양LG 코치 역임)

외 세종대학교 체육과 학생들

회비: 7만원 (인상된 회비 내역: 추가된 3주 프로그램 1만원 + 보험료 1만원)

접수방법: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비와 함께 제출.

(지원한 사람이 과다하게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할 수도 있다)

[중등부]

수련회의 은혜가 말씀 회복 운동으로 이어지길

중등부는 지난 1월 26-29일까지 3박 4일 동안 올네이션스가 주최한 청소년 경배와 찬양학교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후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졌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체험한 아이들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도 보이고, 무엇보다 신앙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중등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회복 운동을 전개한다. 2월 2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됨으로, 중등부는 예수님의 수난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기위해 사순절 말씀달력을 코팅하여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며, 3월 14일에는 청소년 큐티 책인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한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한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중등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새로워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새벽이슬팀 컨퍼런스]

새벽이슬의 재도약을 준비하며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주일 4부 예배 찬양팀 새벽이슬의 자체 컨퍼런스가 중강당과 찬양연습실에서 있었다. 자체 컨퍼런스인 만큼 멤버들의 실력과 영성을 고루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유상렬 전도사, 조성곤 집사와 함께 특강을 연습 사이사이에 병행하였다. 새벽이슬은 장년예배로서 4부예배의 성격이 바뀐에 따라 이전의 청년부 동아리와 같이 운영되던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지난 1월 청년부 개편을 통해 예배사역팀으로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멤버들 안에도 팀의 정체성 인식과 함께 적합한 동기 부여 시점이라 생각되어 이번 컨퍼런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보컬과 밴드를 나누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파트연습과 합주연습으로 진행되었고, 필독서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예수전도단)'을 통해 실력과 영적 성숙에 힘을 쏟았다. 또한 유상렬 전도사의 특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배자로서의 모범이 될만한 성경인물의 모습을 토대로 멤버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조성곤 집사의 특강은 교회 방송 담당자로서 그간 보았던 새벽이슬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초적인 보컬 테크닉을 알려주었다. 셋째 날에는 용인 에버랜드로 가벼운 나들이를 하여 눈썰매를 타는 등 팀워크를 다졌으며, 돌아와 청년부 토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송광수

[선교지 소식]

태국에서 날아온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 보내면서 하루도 언어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현지언어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유롭게 태국어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날마다 꿈꾸면서 말입니다. 매일아침 현지인 전도사 2명과 태국어로 성경읽기를 하면서 아침 모임을 갖습니다. 태국어로 읽는 성경은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태국어 습득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태국의 초등학교는 학교 바른생활 시간을 통하여 불교식 도덕을 가르치기에 이들의 생활 속에 불교적

인 정신세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고, 앞으로의 선교적 가능성이 큰 것을 늘 생각해 보면서 어린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팀의 도움으로 함께 초등학교와 마을에서 다양한 전도활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태국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태국내 여행업계가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 뿐 아니라 태국내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 1. 28. 태국 푸켓에서.

홍경환, 이미라 선교사 (수희,승연) 올림.

[유아부]

직접만든 악기로 찬양해요!

지난 주일(2월 8일) 유아부에서는 예배 이후 2부 순서로 반 별로 "마라카스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예쁜 빛깔의 색종이와 알록달록한 스티커로 자신의 마라카스를 직접 꾸며보면서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었고, 같은 반 친구들과의 협동심도 돈독해질 수 있었다. 다 완성된 마라카스를 들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찬양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었던 유익하고 재미있는 2부 활동이었다.

유사랑 기자

[유년부]

꿈을 키워주는 유년부 교사 MT

교회학교 유년부 교사들은 광림기도원에서 지난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월 1일 2부 예배 시간 전까지 교사들간의 MT를 가졌다. 기존 교사중 9명의 교사가 연말에 사임하고 새롭게 9명의 교사가 동참했었는데 이번 MT를 계기로 새롭게 유년부 교사들간의 아름다운 팀워크를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김명애 교사

[청년부 9개 사역팀 전체 모임]

청년부의 동맥 역할을 위해

2월 8일 4부 예배 후, 청년부의 9개 사역팀들이 전체 모임을 가졌다. 각 팀 별로 팀장들의 주도하에 올 2004년 사역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청년 1, 2부 간에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04년부터는 모든 청년들이 각 사역팀에 소속되기 때문에 각 팀들은 예년과는 다른 각오로 많은 준비를 하여 첫 번째 전체 모임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팀 사역에서는 청년들의 자발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만큼 각 팀장들은 더욱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 섬김사역팀, 새가족사역팀, 문화사역팀, 예배사역팀, 인터넷 사역팀 등이 있다. 소그룹 사역은 귀납법적 성경연구를 바탕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 청년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특히 전도를 통한 쉼의 번식을 목적으로 한다.

3월 첫째주부터 모임이 시작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20여명의 조장들이 열심히 귀납법적 성경공부를 몸에 익히고 자신에게 맡겨질 조원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조장모임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 5층 청년부 2실에서 윤은성 목사와 유상렬 전도사의 인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부 기도회]

청년이여 기도의 불을 붙여라

2004년부터 청년부 기도회가 1,2부 연합으로 토요일 저녁 7시에 1층 유년부실에서 열리고 있다. 6시에 미리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7시부터 유년부실에서 윤은성 목사와 유상렬 전도사의 인도로 진행된다. 기도회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여 유목사의 설교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소그룹별로 개인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청년부원들 뿐만 아니라 청년 1,2부 부장 집사들과 기도를 돕는 집사와 권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청년들의 기도제목들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있다. 청년 토요 기도회는 성도들 중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교회소식}

1. 신앙사경회

2월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오후7시30분에 대예배실에서 신앙사경회가 열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광염교회의 조현삼목사가, 수요일에는 문동학 담임목사가 강사를 맡습니다. “영광 Gloria”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신앙사경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모실과 탁아방이 준비됩니다.

2. 2004년도 교회요람 배부안내

교회요람이 2월29일(주일)에 안내데스크(1층 로비)를 통해 배부됩니다. 구역장(권찰)은 구역세 대수만큼 받아가셔서 구역원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3. 발 마사지 교육 선착순 40명

발 마사지 교육이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4주만에 걸쳐서 1층 유년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첫교육은 2월 21일(토) 10시에 있으며, 40명 선착순으로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합니다.

4. 친교실 봉사자 모집

1층의 친교실을 주중에도 열어 차와 음악이 있는 아늑한 대화의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평일에 3-4시간씩 주1회 정도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5. 제 30기 호스피스부 자원봉사교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3월 18일(목)부터 5월 27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정동제일감리교회 사회교육관 지하1층 아펜젤라 홀에서 실시됩니다. (선착순 120명. 수강료7만원. 문의: 김양자 권사, 017-250-0670)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안내

부서	날짜	장소	문의
유년부	2월 21-22일	주님의교회	김진경전도사 019-291-8371
소년부	2월 20-21일	주님의교회	김보선전도사 017-741-1919
고등부	2월 22-23일	주님의교회	김현령전도사 017-354-9639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입니다 <왼쪽면에 계속>

{교우 소식}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으로, 전기과나 기계과 출신의 공업고등학교 내지 전문대 졸업자, 35세 미만으로 기계조립 및 AS 업무를 담당할 성도를 구한다. 2월 18일(수)까지 박중순 집사(삼우식품기계, 498-2790)에게 문의하면 된다.

*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의 군사로 키우자!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육군훈련소사역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일(월) 오후 6시 30분에 영아부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정영환 목사의 지도로 시작하여, 제3국내선교위원회 성백술 장로의 격려의 말도 있었다. 팀장을 맡게 된 장순웅집사는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종교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설명하면서, 이 사역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중보기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를 느끼고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중보기도모임을 갖기로 했다. 비록 7명으로 시작한 작은 첫 모임이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꿈을 꾸기 시작한 의미있는 모임이었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이번주 목요일(19일) 오후 6시 지하1층 영아부실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 소망의 집 봉사팀

“이 날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봉사하러 가지 않으면 그 한 달이 더 부담이 되요.”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김연희A 집사는 봉사하는데 생기는 ‘거룩한 부담’을 이렇게 표현했다. 2월 9일 월요일 국내선교를 담당하는 윤덕영목사와 6여선교회 회원들이 소망의 집으로 향했다. 자폐아, 정신지체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신체장애우 20여명이 생활하는 마천동 소망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지선, 송영주, 김연희 집사는 세면장으로 향했다. 먼저 도착한 이지혜, 이주영, 한 경, 이수현 집사가 먼저 와서 목욕을 시키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러 온 분도 있었다. 목욕 후에 보통밥을 먹이는데, 그날은 재정보조를 위해 사탕바구니 만들기 부업을 도왔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팀원들은 이 봉사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다시금 가정사역자로 돌아갔다.

<교회 생활 안내, 오른쪽면에서 계속>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